

<커뮤니케이션과 역사분과>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消息觀型: Information Paradigm)의 원형

- <삼국유사>의 경문대왕 당나귀귀와 <변형>의 미다스왕 당나귀귀 비교에 의한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의 모색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 기 성

I. 연구 목적

인류의 삶의 생태를 조감해 보면 인간의 언전(言傳: communication)은 의견(opinion), 소식(information), 위락(entertainment)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시대와 취집(聚集: 사회를 지칭하는 말로 대신함)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다양한 구성상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한국에서 토착화 해온 기반 소식 양식이 구성되어온 생태로 한정한다. 본 연구 주요 내용은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명사는 “소식” 및 계열어이지만 “정보” 개념으로 통용되면서 기반 언어 생태와는 별개로 상용화 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소급하여 기반 맥을 되찾고 철학적 복구를 모색하는데 맞추어진다. 개화기 이후 서양 근대 문명이 전래되기 시작하고 20세기 중기 이후 “情報(조호)”라는 일제식 개념이 “정보”로 정착하면서 “소식”은 모호해진 생태로 남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일제식 근대성 이식으로 문화 정체성 말살이 시도되었고 재각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영어 “information”이 사용되는 용례를 관찰해 보면 지칭하는 실재(reality)는 특정 시대, 특정 취집, 특정 국가, 특정인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 삶의 과정에 두루 내재해온 가장 기축이 되는 보편적 현상을 지칭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프리카에서 발견 고증된 현생 인류 시조 루시 이후로 본다하더라도 범신계, 인간계, 자연계가 서로 연계되어 장구한 기간동안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행위와 어휘의 구사를 해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20세기 후기이후에는 사물계로 까지 확대 통용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인간의 삶에는 부단히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활동이 지속되어 왔고 인간 삶의 양식이 언어 구사 시대로 체계화되면서 이에 상당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명사로 상대적 정착이 있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와 문물에 무관하게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는 장구한 계보를 이루어 생태 구성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상응하여 명사(개념) 계보가 있어왔다면 information의 재음미와 철학적 논구 필요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착상은 한국의 경우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와 언어가 통용되어온 기반 생태의 맥을 전승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서양 근대 수용 시대에 “정보”라는 말로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개화기에 영어가 전래되면서 영문 도서나 영자 신문 또는 한글 신문 영자판에서 information 역시 통용되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제식 근대어 수용 과정에 많은 기반언어 사용 관행이 단절되고 information 역시 정확한 판단 없이 “정보”로 점차 바뀌어간 것이다. information이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 마치 특정 시대나 특정 문화 현상처럼 인식되고 일체에 의하여 많은 다른 서양 근대성을 상징하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있어온 현상이나 언어 구사의 전통은 훼손되어버린 상태로 남아 단절의 간극을 더 초래하게 된다.

불과 반세기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상화되어 다의적 실용화기 이루어지기 시작한 information 번역어 “정보”라는 말은 뿌리도 없고 인식론적 기반도 없이 일상화 되어버린 어휘이다. 19세기 말기 일제의 자국 사정에 따라, 특히 군사 첩보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nachricht, intelligence 등을 “조호(情報)”로 조어하여 사용하다가 information을 지칭하는 말로 전환되고 일상화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 구사 관행으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에는 토착적으로 있어온 information에 상당하는 다수 언어는 전통 폼하 매장과 한자 단절을 병행하면서 거의 명맥이 모호한 어휘로 되어 버렸다.

지구촌의 삶의 양식이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체성변환이 진행되면서 information을 “정보”로 사용하는 관행은 이러한 어휘 발생 이후의 현상에 한정하지 않고 심지어 “정보”라는 말이 발생하기 이전의 오랜 기반 문물 현상까지도 소급하여 역사적 기반 사안에까지 적용하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있어온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현상에 사용되어온 명사와 새롭게 조어진 명사 “정보”가 혼용 혼돈되거나 상당수의 기반 어휘는 매장 내지 사멸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소식, 신식, 성식, 기별, 보 등의 기반 어휘가 모두 정보로 대치되어 버리는 관행이 발생하여 개화기 이전 문물 현상에도 “정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까지 한다. 새로운 조어 명사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상과 의미의 편차가 발생하고 소급 적용은 그 이전에 있어온 기반 인초와 혼돈이 일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단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와 문물 말살의 수탈을 경험했던 한국으로서는 문화 자주성의 지속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재평가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서양의 제국주의 동진과 함께 근대어의 조어와 통용이 상당한 기반 문물 정체성 혼돈 내지 격하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서양은 그들의 지식 체계화 과정에서 핵심 개념 착안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기원에서 두는 전통을 관행으로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것을 버리면서 서양을 추종하여 생태성의 단절을 스스로 간과하여 열등 종속화를 자초하는 사례까지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절된 정체성의 재발견에 의한 복구와 타당한 언어적 재건의 실험 시도를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기반 전제를 설정한다.

첫째는 영어 information으로 지칭하는 현상이 서양에만 한정된 문명 현상이 아니라 지구 위의 어디든 인간 생활이 성립되는 삶의 장이면 어디서나 성립될 수 있는 소치이다.

둘째는 information에 상당하는 구성행위가 성립된다면 이에 상당하는 언어의 구성도 수반되기 마련이다. 명사 규정이 기록으로 남지 못하거나 인식의 각성에 의한 언어 구사가 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영어 information이 지칭하는 범주를 추정해 보면 인간의 공동체 어디에서나 성립될 수 있다. 한반도의 원시 시대로부터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가 있어왔고 일제가 “情報(조호)”로 번역하고 한국으로 전래되어 대중화되기 이전에도 한국 자체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지칭 명사가 사용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셋째는 서양에서 지칭하는 “information”의 성립 인식 정초 상태(이하 인초태)를 보면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연원은 먼저 신과 인간의 교감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우 상대적 인식론 시각에 착안한 논의와 재평가가 가능하다. 고대 그리스인의 생활에서 신과 인간의 교감이나 영어 용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물질 이원론적 인식 기반에서 출발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이러한 관형을 동양에 적용해 유추해 보면

information은 언전(communication)의 본질이 되며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포함하는 생물, 본연물(자연물)까지 확대 규정하는 비이원론적(또는 일원론적) 기반으로 확대하는 전제의 설정이 가능하다.

본론의 전개를 위하여 첫째는 서양에서 “information”으로 규정하는 실재 및 미다스왕의 당나귀귀에 상응하는 명사의 생태구성을 짚어 계보화 한다. 둘째는 information에 상응하는 어휘로 “소식”과 그 계열어를 규정하고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를 분석하여 한국적 “소식” 관형을 규정한다. 셋째는 경문대왕과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사례를 비교하여 상대적 고유성을 재규정하면서 소식철학의 타당성을 모색한다.

(* 본 연구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정보는 영어로의 번역본을 택하였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 문장과 어휘 구사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인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 중도구성주의(Jungdoh-constructivism)

1) 사천(사유와 실천) 및 윤리 : 중도성과 변집성

중도구성주의의에서 중도의 “중(中)”은 유교의 중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규정한 중용(the mean),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통념화된 중도의 “중”과는 차이가 있다. 중도는 인간 심성에 대하여 고다마 붓다가 전개한 무이중도설(無二中道說)을 차용하여 사유와 실천 및 윤리의 근거 원리를 착안한 것이며 유위사유에서 무위사유로의 일승에 의한 융섭이 이루어지는 경지를 말한다.

필자는 이미 생태구성성을 중심으로 생태구성주의를 전개하면서 방송을 비롯한 매체의 생태구성성(eco-constructiveness) 중심으로 전개해왔다.(박기성, 1998, 2002) 그러나 고다마 붓다의 무이중도설을 차용하여 인간의 사유를 3단계로 응용하면서 사천(사유와 실천)의 본유를 유위의 2변적 유위사유 변집성(邊執性)에서 벗어나 무위사유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유위와 무위를 융섭하는 경지를 중도로 규정하면서 중도구성주의(Jungdoh-constructivism)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다. 사유와 실천은 분리될 수도 있지만 부단히 맞물려 돌아가는 바퀴와 같은 연동(連動)관계로 보아 “사천(思踐)”으로 명명하면서 중도에 이르는 사천인 중관은 3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중도성은 2변을 여원(離) 사유로 성립되며 이러한 제 2단계로의 사유는 분리되는 서로 배타적으로 성립되는 별개의 경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경지로 된다. 2변으로 솔리는 인간 사유의 특성을 변집성(邊執性)이라 하며 변집 사유에서 벗어나는 경지가 중도이며 심성의 이러한 품성을 중도성이라 한다.

중도를 지향하는 사천함을 중관이라 하며 중관 제 1원리는 3계 사유성이다(사유). 중관 제 2원리는 상의적(相依的 또는 연기적) 생태구성성이다(실천). 중관 제 3원리는 불확정성의 근정(謹定)이다.(윤리) 제 1, 2원리 중심으로 인간의 사천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이 성립되며 여기에는 부단히 불확정성이 발생하며 수반되기 마련이다. 인간의 사천은 이와같은 세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성립될 수 있는 데 이를 중도구성주의라 하며 본 연구는 이중에서도 특히 제 2원리인 생태구성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를 시도한다.

2) 생태구성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구조기능주의 주도 지식체계는 한국의 현대 지식 체계를 주도하게 되고 언론학 역시 이러한 틀에서 개척되었다. 영미의 장구한 현상 중 특히 20세기에

구성된 관형 중심의 이식, 새로운 각성에는 성공하지만 전통과 근대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통의 비하, 일제 잔재의 유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이분법적 단순 논리고 채택 또는 배제하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주성을 확립해야 할 시대라 믿으며 그 “전통” 보다는 “기반”의 자주성을 세워 근대를 규정하는 생명의 상태 즉 생태구성성에 착안한다.

필자는 이미 칸트의 구성주의나 사회구성주의, 인지구성주의, 극단구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적 생태구성주의 전개를 시도한 바 있다. 여기서 생태구성성 역시 동양 대 서양의 이분법적 대칭 관계보다는 동양적 기반에서 서양의 안목을 비판적으로 융섭하는 시도를 해왔다. 생태구성주의에서 생태는 동양적 심성에 기초한 발상의 시각이며 구성은 서양 이성적 발상에서 출발하여 심성 중심의 각성으로 전환한 입장이며 인간의 제반 조형적 작성행위 내지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의적(또는 연기적) 생태구성성의 근본적 원천은 고다마 붓다의 중도로 보아 중도구성주의로 심화 규정하면서 생태구성성 (또는 상의(相依) 생태성)으로 제 2원리로 명명한다.

2. 명사의 생태구성성

생태구성성은 인간을 포함한 제반 생태에 따라 성립되는 구성의 결과 역시 단순한 객관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지속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명사를 비롯한 언어 역시 그러하며 명사의 규정은 언제나 실재에 상응하는 규정의 불확정성이 부단히 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명사의 발생과 관독에서부터 불확정성은 따르기 마련이며 명사의 지칭성은 한계가 따른다.

명사의 생태구성성은 명사가 인간이 인식하는 생명상태로 성립되며 첫째는 계보를 이루어 순환한다. 실재에 대하여 칭명되는 명사는 계보를 이루며 생명상태로 유지되는데 하나의 명사가 가지는 생명의 순환 주기는 미정계열, 규정계열, 변용계열, 추정계열로 계보화가 가능하다. 둘째는 한 시대에 칭명되는 명사의 생태구성상은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로 상호 의존적으로 관련지어져 구성상을 이룬다.

지금까지 명사의 규정은 주로 의미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통례로 되어 왔다. 그러나 생태구성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로 구성되며 이는 시대와 취집에 따라 부단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과 변용상의 실태를 생태구성성이라 한다.

인초태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는 인식 정초의 문념 상태를 말한다. 통용태란 언어가 시간, 공간 여건에 따라 당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사용해온 상태를 말한다. 의미태란 언어가 실재에 대하여 구성되어진 값을 말한다. 이 세가지의 요소가 결합하여 명사의 생태를 이룬다.

3. 재규정 명사와 신조어

1) 명사의 중도구성성 (중도성, 변집성, 생태구성성, 불확정성)

중도의 경지에서는 언어 구성의 경지를 벗어난다(離言). 그러나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사유, 시리친, 판단에 변집성이 작용하기 마련이며 삶이 지속되는 동안 부단히 작용한다. 언어 역시 변집성이 작용하는 생태구성상의 한 사례가 된다. 언어에서 발생하는 변집성은 심성의 유위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부터 기원하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단히 생태구성상을 이룬다. 이러한 관점을 한국 언어에 적용하여 적용하면 기반, 개화, 현대로 시대 단락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의 구획화된 구분이 아니라 순환하는 실재에 대한 해석을 쉽게

비이원성(일원성, 동체성)-----	이원성 -----
- 구사언어	
한자/언문 -----	일본어-----
	한글 -----

O 명사의 재칭명(재칭명)	
세계, 천(본연)-----	자연(nature) -----
문물-----	문화(culture) -----
재기(載器)-----	매체(media)(X)-----
취, 취집, 취회, 취중, 취락-----	-----자재(본연위계)-----
	사회(society) -----수평적 취유

3) 번역어와 신조어(명사)

자연과학에서 명사는 시대성 내지 역사성과 취집성을 고려한 생태구성성이 반영되지 않아도 설명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신증을 요하는데 상대적 고유성 때문이다.

여기서 조어나 실용성을 잃은 상태의 어휘를 다시 채택하는 시도는 이미 사용되어온 언어의 통용태와 의미태를 고려하여 시도한다. 기존 번역어가 부적합하거나 인식 혼돈으로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역사적 자료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나 새로운 명사를 조어한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조어나 재발견한 명사이며 기반 정서에 기초한 재발굴과 신조어에 역점을 둔다.

- 변력(辨力: logos=reason)

logos나 reason을 이성(理性)으로 번역하는 것은 동양적 인식 논리와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전제도 다르기 때문에 변력이 더 타당하다고 믿는다. 변력이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인간은 logos=reason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서양 철학적 기저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 reason은 변별할 수 있는 기량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reason을 faculty(기량, 용력)으로 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동양으로의 전래되면서 “이성”으로 번역해 오고 있으나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고 믿는다. 이성의 리(理)는 기량(faculty) 또는 기능(function) 중심의 변별하는 힘으로 동양적 리(理)와 혼돈을 초래될 수 있다. 동양의 성(性) 역시 서양이 기량을 전제로 하는 점과는 다르다. 동양의 심성은 달도를 지향하며 내증적 내면적 사천 경지이며 서양의 변력은 외향적 관계에서 합리적 지식을 지향한다.

- 취집과 사회

취집은 모든 유무생물에 상관없이 집단 모임을 지칭한다. 기반 시대 인간의 취집을 취회라 하며 개화기 이후 서양 시민사회 사상 전래와 함께 상용화된 society는 사회로 번역한다.

- 자유(自由; freedom)와 취유(聚由; liberty)

freedom, liberty를 모두 “자유”로 번역하는 것은 혼돈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freedom을 자유로 liberty를 취유(聚由)로 번역한다. 취유란 liberty에 상응하는 적합한 상당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공동체인 취집(聚集, 또는 聚, 聚會)의 상태에서 구성원이 상호 관계어서 계약에 의한 보장으로 확립된 자유를 말한다. 어떤 학자는 자유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 culture는 두 가지로 번역한다. 개화기 이전 물심 비이원적 인초태에 기초한 인간의 조형 행위,과정, 결과를 문물이라 한다. 개화기 이후 서양식 이원론과 culture관에 입각한 경우를 문화로 칭명한다.

- 기반, 전통, 근대

근대와 전통의 패러다임은 서양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에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반과 근대로 부르기로 한다. 기반은 이미 자생적으로나 외래적 전래에 의하여 적응 또는 재창조의 실험 단계를 지나면서 자주적으로 정착한 순환 지속적 생태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 수용되는 근대는 기반과는 전혀 무관한 단절 상태의 이식이기 때문이다.

- 본연(천, 세계)와 자연

자연은 개화기 이후 서양의 nature관이 전래하고 정착한 말이며 물심 이원적 인초태에 기초한 개념이다. 토착적 자연성이 서양식으로 전환되면서 동양의 일원적 또는 미이원적 인초는 상실되고 고유 개념의 의미태가 단절되어보린 상태로 남았다. 이에 상응하여 동양식 물심 비이원적 또는 일원적 유무 생물을 포함하는 세계를 본연(本然) 또는 여연(如然)으로 칭명한다. 여연이란 여여한 본연이라는 의미이다. 자연이 인간의 이성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기초한다면 본연은 심성에 의한 인격적 관조로 동체 조화의 정체성을 교감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언전(言傳;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은 언전(言傳)으로 번역한다. 서양의 communication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언전은 인간이 심성을 가지고 달도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성과 심성은 인간 마음을 규정하는 기축을 달리하는 입장이며 양자는 대칭 관계가 아니며 심성에 이성은 내포될 수 있다.

III. "information"과 미다스왕 당나귀귀의 생태구성성

1. information관형의 인초태 (생태구성성)

서양식의 information 구성은 인간, 자연, 문화, 매체의 상의(相依)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리스에서 인간은 변력(logos=reason을 이성 대신에 번역하여 씀)을 가진 존재로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인식 기반은 기량관(또는 용력관 :faculty view)에 기초한다. 인간의 마음(mind)를 기량 중심의 변력(辨力 : logos=reason)과 심성(心性 : simsung) 중심의 달도(達道)로 규정하는 입장은 상호 상충이나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울 수 있는 다축으로 구성되는 관계이다. 서양의 변력은 나 또는 우리의 판단은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며 자연 뿐 아니라 동일한 종인 상대방 인간의 희생을 정당화하기까지 하

는 변증적 대립과 판단에서 타당성을 찾으려 한다. 변력 중심 인간관은 인간과 자연, 취집과 자연을 대립의 관계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물심 이원론적 인식 기반의 전통에서 삶과 언어의 구사가 성립된다. information 역시 이러한 인초태를 전제로 성립되며 기능적 측면에서 구사한다. 시대에 따른 통용태 및 의미태의 순환 계보를 읽을 수 있다.

서양식의 지식(knowledge)은 용력에 전달되는 행위(to inform)에 상응하는 앎(to know, knowing)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경지이며 동양적 심성 사천의 시각에서 본다면 주로 제 1계 사유와 행위로 구성된다. 이 점에서 인초의 차이가 있다. 서양의 경우 소식행위(to inform)에 상응하여 앎의 행위(to know)가 성립되고 앎의 체계화에서 지식이 성립되며 이는 고대 그리스 이후 전승된 인간 삶 지향과 실천의 토대이기도 하다.

인식과 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information은 to inform과 그 행위의 결과물인 information으로 이원적 구성을 이룬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변력에 의한 정형지향 지식구성관이 주도하면서 information과 knowledge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to inform"이 성립될 때 knowledge가 가능하지만 실제 생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information이 knowledge 만큼 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information은 주로 구어가 상용 수단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잔존 문헌만으로 판독에는 한계가 따른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후대로 갈수록 information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확대되고 활용 빈도도 증가한다. 소크라테스 이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전승되는 기원전 4세기경에는 information이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information 행위는 다중신 중심에서 취집 또는 인간 중심으로 변환해 가면서 문명을 구축하는 과정이 있듯이 information 행위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과 인간, 신과 국가, 국가와 시민, 시민의 일상생활 등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용례는 행위 측면, 실물 측면, 언어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2. 고대 그리스 로마의 information 상당어와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실재와 상당하는 명사의 칭명을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중도성의 전제한 생태구성성에 착안한다면 먼저 서양의 information과 상당하는 실재의 검토가 필요하다. 서양에서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와 개념의 발생 기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로 소급할 수 있다. information의 의미가 함축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더 원시적 근거에서도 추정하여 추정계열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도 구어 중심의 도시 국가 체제가 지속되어 왔고 문자의 대중화와 기록 자료의 한계가 있으며 문자로 기록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할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 다소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1) 규정계열어, (2) 추정계열, (3) 미다스왕의 당나귀귀로 나누어 전개한다.

1) 규정계열어 : information 상당어

그리스의 가장 고전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information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각각 2회 사용)

BC 4C에 information은 다중신과 사제의 교감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취집 또는 대인 사이에 체계화되는 시대로 변환이 진행된다. 그리스가 민주제를 채택하고 정착하는 기간은 문자 기록이 대중화 되지 못하고 구어 중심 시대로 되어 왔으며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에서 번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록에서 이긴 하지만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어휘가 실용화 하게 되며 대표적 사례는 기록으로 남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보다는 발언이 보다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information 역시 문언 보다는 구언이 우선하는 시대였다.

소크라테스의 information관은 지식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문자로 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언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사유 기반이 인간 중심으로 되면서 information 역시 인간 중심으로 규정해간다. 플라톤(BC 428-348?)의 <국가론(Republic, BC 360?)>에서 information은 knowledge의 규정에 핵심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information과 지식(knowledge)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information에서 얻는 지식이다 ; Knowledge in itself is knowledge of information in itself (Waterfield, 1993; 148)”라고 한다. 여기서 는 주지하는 행위로서의 information을 말한다. 여기서 information은 주지(周知; to inform)에 기초하며 앎(to know)이 연계되어 knowledge관이 성립되며 이는 서양의 지식과 information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 관형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국가론>에서 "만약에 신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돌본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information의 원천은 전통과 이를 시로 써 놓은 시인이 되지(365c)."라고 하여 인간이 신에 대하여 인식하는 지식과 information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플라톤의 <패더러스(Phaedrus)>,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수사학>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 참주제())에서 사법적 판단을 위한 고소, 제보를 information으로 서술한다. 특히 기원전 5-4세기에 이르면 민주제의 성숙과 함께 information 역시 확대 사용된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476년까지 약 500년간 계속되는데 그리스 시대와 다른 information 양식은 Acta의 공지 양식이 정착하여 구언과 필언의 이원적 구성시대가 된 점이다.(스티븐스, 1997). Acta는 정부 간행 기관물이며 Acta Diurna, Acta Senatus 등은 필사되어 게시와 회람이 이루어졌다.

2) 추정계열: 신탁(oracle), 예언(prophecy), 현몽(dream), 예시(prophecy) 등의 실사(實事) 추정계열이라 함은 “information”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본질이 information 행위로 되어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나 후대의 평가로 information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어휘가 원만하게 정착하지 못한 시대의 실제 사안이나 information 행위가 특정 명사로 칭명되는 경우에 찾아볼 수 있다.

휴세이는 그리스의 지식(knowledge)을 논하면서 신이나 인간 모두가 사물을 아는 존재로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신은 필요에 따라 인간에게 신뢰할만한 information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그 매체는 꿈, 징조, 전조와 신탁을 통하여 직접 언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Jussey,1990, 11) 템프시는 델피신전의 사제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information 영역을 구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피티안 사제들은 독특한 information 구사 능력이 있어서 자문도 했다고 한다.(Dempsey, 1918, 102-103) 헤로도투스 역시 <역사>에서 신탁이 information이 될 뿐 아니라 첩보, 또는 전달되는 사실이 information이 됨을 말한다.(Herodotus, 1998) 러셀은 신탁뿐 아니라 그 시대에 information 유통이 통지자(informant)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첩보원(informer)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information 수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한다.(Russell, 2002) 반덴버그 역시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신탁에 의존하는 것을 information으로 규정한다.(Vandenberg, 2007; 20-21) 아

테네 민주제의 실천에 중요한 공론 공간이 된 아고라는 시민이 information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며 이러한 신 중심의 예언적 information 뿐 아니라 민주제의 운용과 스토아(stoa)가 인접하여 있어 일상생활과 연관된 information이 공유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Lewis, 1996; 13)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하면 신탁은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 국가간의 전쟁이나 국가적 사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예언이면서도 information이었음에 이견이 없다.

information에 상당하는 말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생활 속에 실제로 지속된 신탁, 예언, 징후 등은 그 본질에서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행위로 주청해볼 수도 있다. 특히 기원전 7세기부터 새로운 국가 체계로 접어드는 그리스 로마 시대는 오랜 기간동안 고유 언어가 없었고 페니키아 문자에서 차용하여 만든 알파베드 형태로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information에 상당하는 개념으로 원만하게 정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양식으로 information이 있어 왔음은 입증될 수 있다.

데모스테네스는 민주제를 채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대한 아폴로 신전을 지어 정치와 중요한 사안 결정에 사제의 신탁 조언에 의존하였다. 이 때는 아직 인신 공양이나 동물 희생의 제사가 유지되었고 로마 시대 아우구스쿠스가 가톨릭교의 공인과 함께 유일신 시대로 진입할 때까지 그리스의 다중신을 숭앙하는 인간관계는 유지된다.

다중신과 인간 사이에는 언전(communication)이 성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으로부터의 예시인 신탁은 그리스 정치와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리스에서 신은 완성형의 정형성도 갖추지만 부조리한 인간 정서도 가지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실험하고 징벌하는 숙명을 부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헤로도투스의 <역사> 서술에 의하면 수천 마리 동물을 아폴로 신전에 제사할 뿐 아니라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면서까지 사제는 모호한 신탁을 받아 다시 그리스어로 바꾸어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스에서 이러한 방식의 신 숭배가 금지된 것은 그리스가 폐망하고 로마 중심 시대로 되면서 유일신 종교시대 이후였다. 이러한 신이 내리는 예언이나 신탁은 고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수(神授) information의 공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로마는 그리스의 신화 뿐 아니라 개화된 문명을 전승하게 되고 신화 역시 그리스에 기초한 변용이 시도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오비드의 <변신; Transformations> 역시 그리스 신화를 전승한 사례가 되며 그들의 information 차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information 양식은 기독교의 공인과 함께 유일신에 의한 새로운 information 양식으로 변환된다. 제우스의 예언은 중요한 information 행위가 된다.

이러한 인초태는 로마 중심 체제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개화 과정에 라틴어가 주요 지식 기반이 되는 동시에 종교적 information 관념이 그대로 남는다. 그 사례는 OED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가 주도하는 5세기 이후 유럽 중세 암흑기에서는 역시 신과 인간은 정보를 교감할 수 있는 관계로 본다, 이러한 근거는 아래 소개하는 영국의 information의 용례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3)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미다스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를 비교하여 다루는 이유는 신라의 <삼국유사>에서 채택하는 경문왕의 당나귀귀와 동서양으로 대비되는 information 관형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는 로마의 오비드(Ovid)가 라틴어로 집필한 <변형(Transformation)> 중 미다스왕(Midas) 부분에 수록된 내용이며 그리스 신화를 전승한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시

대 information 생태구성성은 신화와 당시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필자는 그중 가장 기반 사례가 되는 관형을 Ovid의 <변형> 중 <미다스의 당나귀귀>에서 찾고자 한다. 본 내용의 서술에는 information에 준하는 말은 없지만 프리기아의 미다스왕의 신체적 기형은 백성에게 알릴 수 없는 묵지(默知 : intelligence, 또는 기밀)이며 통용될 때 중요한 information이 됨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에 소개할 한국의 <삼국유사>에서 경문대왕의 당나귀귀와 유사 사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미다스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를 비교하여 다루는 이유는 동서양으로 대비되는 information 관형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변형>에서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부문은 짝막한 한 영역이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제국주의적 권위와 이에 굴종하는 프리기아의 종속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리스 신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다중신에 예종하는 모순적 인간관의 부각으로 볼 수도 있다.

미다스는 아폴로가 부여해준 만능의 황금변환 능력(golden touch)을 반납하고 배회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때 산신 트몰루스가 심판을 맡고 음유신 아폴로와 임야의 신 판(Pan)이 음악 경연을 하여 모두가 아폴로의 승리를 선언한다. 미다스는 그 심판에 불복중하는데서 숙명적 징벌은 시작된다. 판에 편을 드는 미다스는 이에 불복하게 되고 델리우스는 아둔한 귀를 가진 미다스왕의 귀를 당나귀귀로 만들어 버리고 자주빛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러한 기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발사 뿐이며 참다못해 땅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고 외치고 묻게 되고 갈대가 다 자라면서 임금의 귀는 당가귀귀라는 기밀을 누설해 버린다.

이러한 내용은 전형적인 information 상당 행위이다. 오비드왕의 당나귀귀를 묵지로 하는 자체가 information이며 이를 발설하여 땅에 못지만 통용되어 알려지는 것이 information이다. 내용과 행위의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모두 information 행위임에 틀림없다.

3. 영어 "information"의 의미 계열

영국의 그리스 로마식 경험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면서 다중신에서 유일신으로, 자연에서의 인간으로 각성의 차원이 변환되어 가는 과정에 information 양식 역시 변환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신과 인간 중심으로 성립되어온 information은 영국에서도 생태의 변환과 함께 전승된다. 후에 다시 유일신 중심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인간과 취집 중심 용례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된다. 그리스 시대의 구어 중심 시대에서 중세는 이미 문어 중심 시대를 지나 영국에서 문헌은 문언 중심 시대로 되며 information의 실재 역시 이러한 문헌 중심으로 입증 가능해진다.

1) 유일신과 교감으로서의 information

그리스의 다중신에 의한 information이 신탁, 예언, 꿈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중세 이후 영국에서는 유일신의 계시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이하 OED)를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입증된다. 여기서 유일신이라 함은 로마의 가톨릭교 국교 승인이후 그리스 로마식의 전통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신탁과 제사 관행이 이때부터 단절되면서 유일신의 시대로 됨을 말한다. 다음은 OED에 수록된 역사적 사례에서 information이 신과 인간 사이에 성립되는 영감, 계시, 가르침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의 신탁(oracle)이 다중신과 인간관계에서 성립되는 information과 비교할 때 신과 인간의 영감에 의한 교감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고 인식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형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인식정초와 통용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OED를 근거로 하여 영국의 “information” 개념 정착 과정은 규정계보를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를 중심으로 규정해본다.

(사례1 : *Oxford English Dictionary*)

예시, 신성한 계시(Divine instruction), 영감(inspiration)

- informacyon of the holy goost(1526)

O, God, which by the information of the Holy Ghost hast instructed the hearts of the faithful.(1559)

(사례 2: *Oxford English Dictionary*)

마음 또는 성격 형성(가짐)에 필요한 훈련, 지침, 가르침/교육의 조성(formation, moulding)

-Trevista Hiden(Rolls) VI. 33(1387년)

Phere is I -write pat fyve bookes com down from heven for informacioun of mankinde.

하늘로부터 인류의 교시를 위하여 내려진 5권의 책

- Their (apocryphal books) fitnessse for the publike information of life and manners (1597)

베이컨이 1609년 발표한 <학문의 진보(*The Advancement of Learning*)> 제 25장에 근거하면 information은 신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말하며 이러한 판단은 변력(reason)에 의하여 가능하며 성경의 진실하고 충분한 해석에서 가능하며 생명수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Bacon, 1609) 여기서 information은 일종의 종교적 영감(inspiration)을 의미하며 통지적인 것(informed)과 묵시적인(revealed)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2) 고대 그리스 라틴어 번역

영국에 전래된 inforantion의 상당 그리스어는 informare(동사), enformarcion(명사 4-6C 경), 라틴어는 informatio이다.(OED 근거) 라틴어는 영국의 성경을 비롯한 종교적 지식 체계와 근대 지식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라틴어 중심으로 유지된다. 라틴어는 후에 영어로 번역되는데 번역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1215년 라틴어로 제정된 Magna Carta이다. 제 14조를 영문번역본을 보면 information으로 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3) 뉴스로서의 information

뉴스는 information의 한정된 의미가 부여된 양식이다. 영국에서 뉴스는 적어도 16세기 이후에 일상화 된 말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샤퍼가 인용한 NED 사전을 근거로 하면 news라는 말은 적어도 1500년대 이후에 일상화된 말로 되었다고 한다.(Shabber, 1929) 그렇다면 information 양식이 먼저 인간 생활에 있어왔고 특정 양식으로 정착하면서 news가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영국은 Courant의 간행에 이어 1640년 시민전쟁과 함께 근대 신문의 효시인 뉴스책(newsbook)이 간행되면서 information과 intelligence는 시민적 각성의 계기가 된다. 그 후 뉴스책의 information과 intelligence의 전달(mercury)은 1670년대 근대 신문지(newspaper)로의 정착과 함께 뉴스로서의 생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뉴스책과 소책자(tracts)가 간행된다.

4) 주지된 사안으로서의 information

홉스는 <레비어던(Leviathan(1651))> 제 30장 법률고문의 역할 서술에서 자문은 가장 일반적인 informations과 관할구역 민중들의 불만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Hobbes, 1981; 393) 로크는 <인간 지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3))>에서 형상적 발언은 information(여기서는 교훈적인 내용)을 언급한다.(Locke, 1994) 이러한 information관은 밀의 <취유론(On Liberty)>에서도 행정의 수행에 information의 위치를 서술하는데 언급된다.

4) 경험으로서의 information

변력(reason) 중심의 데카르트적 지식관에 회의적 안목으로 비판하면서 개인의 인상(Impression)과 관념(ideas) 중심의 상대적 경험 중심의 지식을 강조한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1739-40)>에서 지식과 information의 관계에서 information만이 경험적 지식을 이룬다고 한다. <도덕과 정치철학(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에서도 경험만이 “우리에게 information을 전달한다.(--- experience only gives us information.)”라고 한다.

4. 서양 information의 생태구성성 (요약)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19세기로 이르는 과정에 information의 생태구성을 조감해 보면 변력(logos=reason)을 기초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에서 성립되며 언어 용례는 추정계열과 규정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nformation은 대인 관계의 언전(言傳)에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 신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는 신과 인간간의 information이 주도하던 시대의 양식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취집 내에서의 인간과 인간관계로 되며 시민사회에서의 information이 대표적이다.

영어 information관은 근대 시민사회로의 문명화 과정에 장구한 기간동안 실험 시대를 가지며 정착하게 된다. 1640년대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information은 intelligence와 함께 영국 신문의 효시인 courant, newsbook 등에 중요한 핵심이 된다.(Joad, 1993). 인행령(印行令)이 폐기되면서(1695년) 의견과 information의 자유는 명예혁명에서 확립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에서의 의회위원의 언론자유(freedom of speech)와 함께 시민사회화와 도서신문 잡지 등의 대중화 길을 열어 놓는다. 흄의 회의주의에서는 지식을 이루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 전체를 information으로 본다.

이러한 풍토는 의회 중심의 의사 진행에 대한 공개로 주지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의 길을 열어 놓을 뿐 아니라 식민지 미국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지민주주의는 오늘날 BBC의 Royal Charter의 주요 정신 기반이 되기도 한다. 영국은 대중신문의 상업적 경영에 맞추어 information의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되고 식민지 경영을 위한 신속한 information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19세기에 실용화 하게 된 전신, 전화 등의 통신 방법은 그들이 겪는 해양국가로서 산업화 과정의 언전 생태구성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을 뿐 아니라 세계규모의 식민지 경영에 주요 수단이 된다.

5. 서양 information관의 동양 전래와 번역(情報, 信息)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약 300년이상 정치 시민사회, 경제(산업), 매체의 측면에 제국주의

체성이 가미된 영미식 information관이 19세기 서양 제국의 동진 전략과 함께 중국, 일본,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 각성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어 information 역시 서양에서 전래되어 중국, 일본, 한국에 번역이 이루어지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조호가 한자어 “정보”로 번역되어 사용되면서 information의 서양 기능론적 각성과 함께 인식 구성이 성립된다. 그러나 180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종료이후까지 information이 “정보”로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들 3국의 공통적 특성은 전제 군주 체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information의 수평적 확장성과 주지성에 미흡했고 근대화 과정에서도 정치체제에 따라 심한 도전을 받게 된다. 중국은 아편전쟁이후 개항과정에도 신문의 information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와 상충한다. 일제는 천황중심 제국주의 근대국가 구축을 천황중심헌법에 의한 제국화가 진행되면서 의견 중심으로 신문지 체성을 갖추어갔다. “언론(speech)” 개념도 이러한 토양에서 의견 중심으로 재규정된 표현 행위라 할 수 있다.

“신민(臣民)으로서의 국민(國民)” 개념의 구성은 서양 “시민(citizen)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양 신문지가 장구한 기간동안 실험해온 information 체성을 깊이 있게 육성하지 않는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광장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천황을 지향하는 충성심에 혼돈을 초래하고 군국주의화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情報” 개념 발생은 시민사회 지향의 자유와 평등 이상 실천이 온상이 된 것이 아니라 군사 용어로 조어 통용되면서 태평양전쟁종료까지 군사 제국화의 구현 과정에 정착된 개념이다. 초기에는 information을 “消息”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情報 개념이 정착하게 된다.

1) 중국의 초기 information 번역

중국은 1992년 국가적 합의에 의하여 information을 信息으로 쓰게 되며 information society를 信息社會로 쓰게 되는데 대단히 국가적 각성의 소치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적어도 1815년 <자전> 간행부터 1910년대까지 情報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고 일제의 영향을 받아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서양 근대성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양인(특히 선교사) 또는 자국민에 의하여 대량의 근대어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information은 처음부터 <情報>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

한국 보다 앞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앞서 영문 문헌 번역이나 간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번역영어가 상당한 실용화를 위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일본에서는 조호 즉 “정보”라는 말로 번역하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에는 “정보”라는 어휘로 정착하게 된다.

2) 일제의 information, intelligence 번역어 “조호(情報)”

<情報 개념 사용 사례표>

1862 1873 1876 1888 1901 1903 1911 1918 196년대

영화대역수진사전(1862) :

information ; 가르침, 고지, 수술, 양해, 송사 *

自由之理 ; 中村敬太郎(역)(1871)

J.S. Mill의 *On Liberty*(1859) 번역 (情報 쓰지 않음)

부음삽도영화자휘(1873 : 페이지 6년)

information ; 소식, 교유, 보고, 소송, 지식 *

불국보병진중요무실지연습례범(1876, 페이지 9년) 사카이 번역 “)

; Renseignement(불어) - 情報로 번역

후쿠자와 유키치(1879, 페이지12) <民政一新>“인포메이션(情報 어휘안씀)그대로 씀”

병어자휘초안(1888, 페이지 21) : 군대 관련 사전에서 사용(오노교수 주장)

전론(1901) - 번역에 “情報”씀 *

<대전원리>(페이지 36, 1903) : 프로이센 장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 <대전원리>중 <전쟁론>에서 Nachricht를 “情報”로 씀*

사림(1907, 페이지 40) 情報 : 사정을 알림 *

다케다 대장이 적정 보고를 통합하여 만들었다는 설(페이지7-9년경)*

소설 <후지도모에>(1911, 페이지 44년) - 情報 용어 씀 *

숙어분위영화사전(1915, 다이쇼 4년) : 情報 씀 *

대일본병어사전 (하라타 지음)(1918) :

적의 동정 행동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작전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 *

194? 내각정보위원회 - 情報 씀

* 關英男(역) <情報理論> 195? 東京: 岩波書店 - 자연과학적 정보이론

다다오 우메자오 <情報産業論> (1962)

켄큐샤 새영한사전 ; information 번역

Kenkyusha's New Dictionary of English Collection. 1964.

information : 통보, 고지, 음신, 소식, 지식, 견문, 고발(情報 안 씀)

* 오리가사 가즈후미() 고도정보사회의 길잡이. 김재홍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에 근거한 자료임

서양의 information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시민 사회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인쇄매체나 통신매체 등에서 information이 체성화 하지만 일본은 천황중심 제국화 과정에 의견 중심으로 신문지의 체성화와 함께 information은 상대적으로 파소화 되고 이는 제국화의 정보 통제 정책과 연계하여 그 억제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 선진성을 수용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제국화 하는 과정에 서양 문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번역은 중요한 영역이 되고 사전을 간행하는 등 단계적 심화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소식” 중심의 기존 개념을 차용하기도 하지만 신조어를 만들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조어의 경우는 철학적(인식론적, 경험적) 기반이 전혀 배제된 구조 중심의 의미 실용화로 되고 있다.

처음부터 information을 情報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소식, 교유, 소송, 보고, 지식”으로 번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영역에서 첩보, 기밀 등의 정세 보고를 의미하는 말로 renseignement, nachricht 등 군사 첩보, 동태의 보고 등을 情報라 하다가 information 중심으로 情報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천황 중심 군국주의의 구현을 위한 전쟁과 정복에 情報 개념은 대중화 한다. 일제는 제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information에 대한 각성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제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종료까지는 독일과의 동맹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정보 선전기구는 독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전시 체제 하에서는 내각정보위원회의 설치와 정보 기능 강화는 정보 각성의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태평양 종전이후 일본은 information에 대한 인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아마도 전쟁에서의 경험이 주요 계기다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UN이 결성되면서 information의 자유는 UN이 범세계적으로 내세우는 핵심 슬로건이 된다. 1950년대에 일본은 이미 information 관계 다수 도서를 번역하게 되고 1960년대 초기에는 우메자오 다다오의 정보

산업론(information industry)까지 되며 그 이후는 다수의 학자에 의하여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미 있어온 첩보 기밀 개념 보다는 주지된 실물 중심으로 다원화 한다. 그러나 영어 information을 일본의 문물에 맞춘 계보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 개념의 변신을 보면 기존 있어온 information 상당 실재와는 무관하게 뿌리 없는 명사로 남는다.

3) 한국에서의 정보(情報) 개념 발생

<신문국 장정>에서 “대개 新聞公報라 하는 자는 유지훈 학자문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신사 신정을 탐색 기재하여 세간에 公告公布하는 書章이니”라고 신문지를 정의한다 여기서 규정하는 公報는 public information을 지칭한다. 광고 공포는 to inform을 지칭한다. 본 장정에서 규정하는 제 1 관령(官令), 제 3 국내 잡보(잡보), 제 4 외국 잡보(잡보), 제 7물가는 information에 해당한다.

한자 편집으로 간행되는 <한성순보>에서는 “소식”과 “신식(信息)”이 동시에 통용된다. 전신에 의한 소식의 경우에 주로 쓴다. 이외에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신문지”를 논한 내용에 “소식”을 전한다고 서술한다. “전신기(電信機)”에서는 “신이한 설화를 호보하며 긴요한 소식을 상통하여” “양부(兩府)의 신식(信息)을 상통하니”로 서술한다.

<독립신문> 간행에서도 한글판에는 소식(뉴스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을 영문판에 information은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라는 어휘는 없다. 1914년 <매일신보>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보도하면서 “정보”라는 말을 쓴다. 일제는 강점하의 한국에 1920년 3.1운동의 민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러한 대중적 활용으로 일본 내에 군사 기밀(첩보) 중심으로 정착해온 개념이 한국에도 “정보” 어휘가 공식화 일반화 되는 계기가 된다. 1920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어 사전>에는 “정보”가 없다. 1938년 문세영이 간행한 <조선어 사전>에서 “정보”를 “사정의 통지”로 정의한다.

개화기에 영어가 한국어로 전래될 때 한국인에 의하여 양자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선교사 언드우드(Anders)는 일본에서 <한영사전>을 간행하면서 news, rumor, report를 소식으로, bad news를 악보(惡報)로, information을 알게 할 것, 소문으로, news를 소문, 소식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에 의하여 고유한 소식 계열어와 information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다. 한일합방이후 일제의 선진 대야만의 이분법적 문화 수탈로 고유 문물은 비하되고 한자어 통용 역시 봉건주의 산물로 격하되면서 information의 한국적 기반 정체성과의 교감 탐색 기회는 단절된 상태로 일제 강점기를 지난다.

서양에서 도서, 신문지, 통신 매체 등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대중매체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information은 opinion과 함께 중요한 체성을 갖추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첩보, 기밀 중심으로 정치나 외교 영역 중심으로 의미가 정착하게 된다.

조호(情報)를 정보로 번역하여 실용화 한 것은 일본 자체 내에서조차 군사 첩보(정세보고) 중심으로 조어되고 기반 인식과는 무관하게 정착해온 개념처럼 한국이 지금 쓰고 있는 “정보” 개념 역시 기반인식도 철학적 사회문화 생태 고려도 없이 유행 문화상품처럼 실용화 해버린 개념이다. 한국적 성찰이 전혀 결여되어 왔다.

한중일 3국의 공통된 특성은 전체 군주 체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information의 수평적 확장성과 주지성에 미흡했고 근대화 과정에서도 정치체제에 따라 심한 도전을 받게 된다. 중국은 아편전쟁이후 개항과정에도 신문의 information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와 상충한다. 일제는 천황중심 제국주의 근대국가구축을 위하여 의견 중심으로 신문지 체성을 갖추어가면서 서양 신문이 갖는 information 체성을 깊이 평가하지 못했다. information이

배제된 지식관에 오히려 편향되어 있었다. 개항기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성을 관찰하게 되지만 청국으로부터의 독립성 강조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근대성 수용에 편향하면서 일본식 근대성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문에서의 information 기능은 실제로 “보(報)” “보도” 즉 “to inform”으로서의 information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제 강점 시대로부터 해방이 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IV.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

1.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 규정의 타당성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가 적어도 인류의 발생과 상응하여 성립되어온 현상이라면 이에 따른 언어 개념이 발생하여 변용하는 생태구성성이 시대, 국가, 취집, 문물에 따라 상대적 언어 구성상을 이루어져 왔음에 틀림없다. 그 선행 준거로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의 상당어부터 영어 information이 지칭한 바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대기 중심의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실재와 명사 구사를 대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일제가 조어한 정보는 인초태나 통용태 의미태 모두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시대에 상응하는 한국적 실재나 언어 구성상을 찾자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적어도 영국의 기록으로 입증될 수 있는 19세기까지 발생하는 사례를 유추해 보면 information은 지속적으로 신과 인간관계에서 주지, 예언, 통지 하는 행위로부터 취집에서의 구성원간, 인간 내면의 각성 상태까지로 규정된다. 이러한 준거의 틀을 한국의 실재에 차용 대비하여 해석해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다양한 당대 생활 양상에서 information 행위에 상응하는 한국적 양상을 찾아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나 영어에서 통용된 information 실재를 중심으로 하면 이와 상응하는 시대에 한국에서는 다양한 한자어가 오랜 실험적 통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단순히 1 : 1 대응의 번역에 의한 언어적 규정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먼저 대칭적 비교를 시도하고 이에 따른 한국적 해석으로 자주적 안목을 갖추고자 한다. 개념으로서의 명사는 시대와 취집의 사유 실천 통용 생태에 따라 상대적 의미 순환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한자는 표의문자로 시대에 따라 통용태가 일치할 수 없고 오늘날 한글식의 어휘 칭명과는 상당한 인식 거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규정을 요한다. 동양의 인식 기반에 맞추어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고유어가 구사되고 국왕, 귀족, 사대부, 반상, 천민, 노비 등 신분에 따라 사용되어온 언어의 계급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다.

“소식”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수렴하면서 생태구성이 이루어져온 명사라 할 수 있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서는 “소식”을 (1) 천지 시운이 자꾸 변화하는 일, (2) 안부를 전하는 편지나 음신, (3) 상황이나 동정을 알리는 보도, (4) 선전 소식 등으로 정의한다.(이희승, 1994) 천지시운의 변화를 <주역>에서의 천지 역동성을 읽는 일이며 의사소통을 하는 알림, 서신행위까지 소식에 함축한다. 고려대장경의 경우 수선(修禪) 정진 과정에서 스스로 무아의 깨달음을 얻는 경지 역시 소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각성의 경지이며 영국 데이비드 흄이 경험론에서 전개한 지식 성립에서의 information은 좋은 대비가 된다.

소식과 그 계열어를 영어에 상당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소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1) 영어 information의 알림 행위 내지 그 실물을 지칭하는 의미와 근접성을 갖는 점, (2) 한자와 한글로 모두 통용되어 관가, 사대부, 세간 백성까지 일상 어휘로 통용되어 온 점, (3) 한자의 정착 실험과 함께 고유한 자주적 양식으로 성립되어 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삼국

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더 확대 발굴이 필요하나 한자가 정착 실용화 된 조선시대에는 이미 문자화 되어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글이 통용되는 조선 시대에는 한자어 消息과 함께 한글 “소식”이 사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information이 알림에 특성이 있다면 소식 또는 소식은 우리가 가져온 기다림의 정서를 함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환주기를 가지고 통용되어 왔으나 information에 상응하는 재평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자로 사용된 消息의 용례는 다음과 같이 그 상용화 되어온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처리된 자료 중심의 검색 결과)

<消息의 사용 빈도>

	消息 사용빈도(회)
고려대장경	451
조선왕조실록	465
한국고전번역연구원	5,124
한글자료검색(개화기까지)	(소식 ; ?)

6,040

여기서 information을 전제로 한 대비 분석은 주로 (1) 소식 계열, (2) 통지, 주지 계열 (3) 고소, 고발 계열, (4) 첩보 밀고 계열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아직 더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명사의 통용태를 검토해보면 국가 기관과 백성, 세간의 신분, 내용의 특성, 구성양식, 송수신이 성립되는 상호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사용되며 앞으로도 더 사례 중심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시대 한글 실용화 이후 “소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몇 가지 사례만 참고했을 뿐 더 발견해야 할 영역이다.

2.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의 인초태

서양의 information 관형에 대비되는 한국적 소식관형을 설정한다면 적어도 소식의 생태구성을 이루는 저변의 인초태는 일치되지 않기 마련이다. 삶의 방식은 언제나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내재하는 인초태를 토대로 구성해 가기 마련이다.

한국적 소식관의 지속에 개재되는 생태구성 조건으로 먼저 인간은 본연성에 기초하는 심(心), 또는 심성을 가지며 달도를 지향하는 사유와 실천을 행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심성의 주요 인식 기반은 천(天)을 중심으로 본연을 설정하며 본연 인식은 물심 비이원적 또는 일원적 사유에 기초한다. 조상신으로부터 다양한 본연신과 본연의 역동원리와 함께 달도하는 자아를 규정한다. 불교의 경우는 무아의 깨달음에 의한 자아와의 융섭 실천을 강조한다.

본연(또는 고어에서의 세계) 속에서 본연물과 인간의 심성 간에는 내면의 성찰을 통한 교감이 가능하며 다중신에 대한 경배의 제사로 교감과 안정의 수혜를 입는다고 본다. 객관적 사물에 대해서는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내면적 수행을 통한 달관으로 피아 동체 의식의 교감이 가능하다. 언어는 내면적 달도를 쌓는 과정과 연계되며 유훈도교 모두 신언(慎言) 또는 놀언(訥言)을 윤리로 한다. 신언은 달도를 지향하며 제도(載道)를 이상으로 한다. 제도는 언어에 정신적 가치를 부가하여 도를 실는 수단이 됨을 말한다.

국왕중심의 귀족제로 취집에는 신분이 규정된 상속이 이루어졌다. 원시 사만 시대를 지나 삼국시대로 국가 체제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유불도교가 전래되고 달도를 지향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정치적 이념화 하여 순환하지만 달도, 신언, 재도는 주요 덕목이 된다. 소식은 최소한 이러한 인초태에 기초하면서 통용되고 인식과 정서가 갖추어져온 명사임에 틀림없고 서양 information과는 대비되는 고유성이기도 하다.

information에 상당하는 계열은 (1) 명사로서의 소식계열어, (2) 행위 실물 중심의 추정계열, (3) 당나귀귀를 중심으로 3가지로 계보화를 시도한다. 여기서 계열은 중도구성주의에 기초한 생태구성성의 착상에서 언어 역시 일종의 생명 상태로 보는 입장에 근거한다.

3. 소식 계열어와 유관 실물

1) 규정계열

“소식” 관계 용례 계보

규정 계열어 (information 상당어)

息 계열 : 消息(智, 知), 聲息, 信息

知 계열 : 周知, 通知, 報知, 告知, 密旨?, 諜知,

報 계열 : 報道(말할도), 急報, 秘報, 飛報, 馳報, 通報 申報, 彙報, 通報,
捷報, 牒報, 報告

信 계열 : 書信, 音信, 風信 (書札 簡札)

告 계열 : 密告, 布告, 告發 * 密告者(informer)

傳 계열 : 言傳, 傳言

見 계열 : 識見, 見聞

知/智계열(명사) : 知識(제 1계 사유) 및 智識(제 2, 3계 사유),

奇(寄)계열 : 奇別, 通寄,

기타 : 廣布, 頒布

提訴

默知(intelligence)계열 ; 機密, 秘密, 諜報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한국의 대칭어로 “소식”과 포괄적 계열어가 타당하다는 근거, 그 기반을 이루는 인초태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소식으로 계보화 할 수 있는 명사 내지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식” 계열어는 다양한 계보로 구성되는 생태를 이룬다. 여기서 계열로 규정한 것은 언어 역시 생명성이 있고 시간과 공간의 변환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통용태를 이룬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관, 세간, 계층, 상황에 따라 용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시도는 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일이다. 영어 information 전체 개념의 의미에 대칭되는 개념을 모두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에 착안하여 계보화 한 것이다.

한글에서의 “소식”은 대중화 되어 왔고 조선 시대 한글 창제 이후 가사, 서찰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대단히 대중화 된 어휘이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의 실용화에 따라 문자로의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자 소식 계열의 통용태를 살펴 보면 한자가 국가 기관이나 사대부, 양반의 생활 속에 차별화 된 언어 양식으로 통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자가 국가 공식 기록 수단이 된 반면에 “소식”은 보다 내방이나 서민적인 생활에 정착한 말이라 할 수 있다. 한글 자료 역시 더 보완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러한 “소식”의 의미와 기반 정신은 개항기 <신문국 장정>에서도 그대로 지속된다.

2) 추정계열: 신-인(神-人)교감, 소식행위, 실물

인간이 취집을 이루어온 삶에 information의 상당하는 실재를 내재하기 마련이라면 한국에서의 소식 양식 역시 말과 문자로 구성된 사안 뿐 아니라 행위나 실물까지 확대해볼 수 있다. 특히 그리스 로마의 다중신이나 유일신과의 교감을 information으로 규정하는 양식을 한국에 적용하면 원시 시대부터 다양한 소식 행위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앞의 서양 용례(통용태)에서 보아온 것처럼 신화, 신, 꿈, 징후에서 information으로 규정해온 것은 자연스런 일로 장구한 생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information관을 받아들이는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토착적 기반에 대하여 적 논의된 바는 별로 많지 않다. 유물, 유적, 신화, 다중신에 대하여 인간 생존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언전(communication)의 의견, 소식, 오락의 측면접근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명권에 상관없이 원시 시대는 소식 양식과 구성이 포괄적이며 복합적이어서 세분화 전문화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음에 틀림없다. 의견, 소식, 오락의 삼원적 특성이 동시에 융섭하여 구분하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고 후대에 와서는 이를 전문화 된 시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소식의 기원이 포괄적 종합적 소식 양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추정하며 초기에는 본연 신앙, 다중신 등을 제사하고 취집을 이루어 가는 이원적 관계 중심으로 정착해간 것으로 추정해본다. .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보면 정서나 인식이 체계적으로 전문화되지 못하며 지적 각성과 실천이 확립되지 않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체하면서 검토가 필요하다. 지혜의 각성에 따라 소식 양식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실물 구성, 언어구사, 상징물 등으로도 나타난다.

다음에 소개되는 본연의 징후, 사물, 행위 등은 적어도 경문대왕의 당나귀귀 인초태와 관련지어 추정해볼 수 있는 소식의 사례이다.

첫째는 암각화에 의한 소식의 교감 행위이다. 원시 시대는 지혜의 각성이 아직 미개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적 체계적 사유에 의한 지식의 구성이 아니라 종합적 구성임에 틀림없다. 지식이면서도 계시를 받는 신앙이며 교육 내용일 수도 있다. 김열규는 암각화에서 샤머니즘을 분석해 낸다.(김열규, 2003)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필자는 소식의 한 양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원시 시대로부터 있어온 토착적 샤머니즘에서부터 신과 인간의 소식 소통과 교감 행위를 읽을 수 있다. 샤머니즘은 유불도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고구려, 백제, 신라 뿐 아니라 고려 및 조선시대까지 무속이 공적 행위로 남는다.(이재고, 1983) 무속은 다신과 인간의 소식 소통행위이다. 사당의 제사, 천신에 제사 등도 이러한 사례가 된다.

셋째는 종교 행사에 의한 소식의 공유이다. 신라 시대 샤머니즘은 불교와 함께 사찰로 흡수되기 시작하며 불교는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간계 이상의 정신세계와 교감하는 소식 체계를 생활화 하게 된다. 뒤에 소개할 경문대왕의 당나귀귀 역시 불교적 소식 시각에서 읽을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넷째는 한자는 하늘과 소식을 교감하는 매체로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제래 이식에 서 한문으로 앙고하는 행위이다. 중국에서 한자의 발생은 천(天)의 계시를 읽기 위한 점치는 수단이었다.(윤철규, 2009) 이와 같이 기원 자체가 본연의 예시를 받는 수단으로 출현한 점에서 보면 그 활용 역시 소식의 수단이 되수 있었다. 여기서 본연이란 신성(神性)을 갖춘 실물, 지구, 천체를 말하며 이미 중국에서는 은대의 갑골문자 판독에서 천(天)의 영성을 점치는 관행이 국가에 제도화 되어 있었다.(김경일, 1999) 이러한 소식 관행은 왕권 시대의 사직에서 위패 및 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제례 행사에서 지방쓰기로 전승되고 있다. 만파식적은 인간과 본연 사이에 교감이 성립되는 소식 수단이었다.

다섯째는 본연의 관찰에서 분석한 별자리를 비롯한 생물과 인간의 보호에 관한 소식 사례이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별자리 판독에 체계적일 뿐 아니라 무덤에서 사신도는 본연과 인간 사이에 성립되는 소식의 교감이 되는 사례가 된다.(김일권, 2008) 신라 시대 일관(日官)을 두어 관찰하거나 혜성의 징후로 예측하고 소식을 읽었을 뿐 아니라 기이한 생물의 징조에 중요한 소식을 읽어내었다.(문경현/최재석, 2008).

여섯째는 목간, 죽간, 금석문, 서찰 등에 의하여 성립되는 소식행위이다. 고령가야에서 출토되고, 신라, 백제 등에서 출토된 죽간 역시 이러한 소식의 사례가 된다.(국립부여박물관, 2008)(이용현, 2007) 국가를 중심으로 공동생활이 체계화 되면서 소식의 수단은 신이나 본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 상호간에 필요한 수단으로 개발된다. 삼국시대는 동식물이나 본연의 관측 및 이상 징후에서 소식을 얻고 제사를 지내는 소식 사례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소식의 교감은 언어적 행위로 뿐 아니라 추정해 보면 구성된 명사나 실물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인간의 안정을 염원하는 본연의 짐승, 사물에 제사 풍습 중심의 상징에서도 기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적어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하더라도 지혜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본연으로부터 목지(intelligence)를 갖추어 소식화 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별자리를 관찰하고 지진을 발생을 기록하며 혜성에 대해서는 재난이나 쇠멸의 불길한 의미를 부여한다. 신라에서는 백색의 동물에 대하여 길조 의미를 부여한다. 만파식적은 본연과 인간간의 소식 교감의 사례가 된다. 백제 무왕의 서동요는 위장된 소식의 사례가 된다. 고구려의 천문도나 고분의 벽화는 본연과 연관된 소식이다. 제사를 지내는 제주 사면으로서의 무당이 수행하는 굿(내림굿), 부적, 소지는 소식행위가 되며 조선 시대까지도 국사의 한 부분이 된다.

신라에서는 일찍이 종이를 사용하였고 종이의 기록이나 금석문의 작성은 진보된 소식 행위이다. 가야 백제 등에서 발굴되는 부적이나 通知書, 言的, 부첩(簿牒), 부적 등은 소식 행위의 징표물이다.

여기에 소개한 본연의 상징적 징후, 실물, 표현 행위로 소식을 판독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당대의 풍속, 생활상, 유물, 유적 등에서 더 체계적으로 재음미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삼국시대는 동식물이나 본연의 관측 및 이상 징후에서 소식을 얻고 제사를 지내는 소식 사례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4. 경문대왕의 당나귀귀

경문대왕은 신라 제 48대왕이 죽은 후 명명된 시호이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경문대왕의 설화는 고려 시대 일연국사가 집필한 <삼국유사> 경문대왕 중 약 150자로 서술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 대중화 된 신화로 되고 있다. 임금의 모자를 만드는

복두장에 의하여 당나귀귀와 같은 임금의 귀에 대한 비밀이 세간에 드러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두장은 이 기이한 기밀을 참을 수 없어 숲 속에 들어가 외치고 이를 들은 대나무가 퍼뜨리다 잘려지고 산수유는 임금님귀는 크다고 하여 그대로 남는다는 요지이다.

이 내용은 구전되어 오다가 고려 시대 일연이 집필한 <삼국유사>에서 한자로 수록되면서 문언 중심의 정본(定本)이 된다. 이 내용은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의 시각에서 볼 때 당대의 인간 삶에서 소식관형을 음미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생태구성성을 내재한다.

이 내용에서 소식(information)으로 지칭하거나 관련한 계열어를 사용한 근거는 없지만 전형적인 소식행위임에 틀림없다. 임금의 귀가 당나귀귀처럼 생겼다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복두장만이 아는 기밀인 묵지(默知 ; intelligence)이다. 이 사실을 숲 속에서 외치는 것은 주지(周知 ; to inform) 행위인 동시에 그 내용물인 소식이 된다.

이 설화는 단순한 하나의 우화로만 단정해버릴 수도 있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있어온 양식까지 확대하여 소식관형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며 앞에서 소개한 그리스 로마의 신화 미다스왕의 당나귀귀와도 대조가 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불교의 윤회설, 연기설에 기초한 착안이다. 일연선사가 스님이며 신라에 이어 고려에서 간행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회 연기의 대비되는 인초의 바탕은 중도를 이상으로 함을 유추해낼 수 있다. 뱀들과의 동침, 당나귀귀로의 변신은 연기관에 입각한 인과 응보의 소치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 업보의 결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둘째는 불교에 기초한 비이원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는 조화를 지향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복두장이 발설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는 소식은 대나무나 산수유로까지 전파되고 이들도 발언한다. 인간과 본연은 언전으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로 본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후대의 속담처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관계로 본 것이다.

셋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인간으로 가지게 되는 불완전성 내지 모순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이다. 경문대왕의 시정이 민중에게는 선정이 되지 못했을 뿐 이니라 뱀으로 된 영혼까지 함께 동거를 한다는 점은 대단히 냉소적 풍자이면서도 불교적 윤회 응보관도 개재된다. 나쁜 짓을 하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짐승이 되며 뱀은 가축이나 다른 동물보다 더 나쁜 환생으로 연결되며 서로 만나기 마련이라고 본 것이다. .

넷째는 경문대왕의 당나귀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초태는 단순한 하나의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 시대 및 그 이전에 있어온 생활상 중심의 소식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암각화, 벽화, 삼국의 생활, 전설, 설화, 등 인간 지혜의 각성이 지체되어 체계화 되지 못한 시대에 비전문화 된 information과 knowledge와 비분리 시대에서 지혜의 각성으로 점차 인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온 특성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V. “information”관형과 “소식” 관형의 생태구성성 비교

앞에서는 서양의 “information”과 이에 상당하는 한국의 “소식”이 갖는 생태구성성을 짚어 보기 위하여 information과 소식의 용례와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을 시도하였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와 “information” 패러다임, 경문대왕의 당나귀귀와 “소식” 관형을 대비하여 유사

성과 이질성으로 중심으로 다시 비교하고 해석을 시도한다.

1. 두 당나귀귀 신화의 유사성

미다스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에서 먼저 유사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 해석은 각각 정본 내적 외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두 가지 사례 모두 information에 상당하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구성으로 볼 때 information 행위임에 틀림없다. 신화의 줄거리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구조를 거의 일치한다. 절대적이며 편협적인 국왕과 이에 대한 조소적 풍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두 임금의 기형적인 당나귀귀, 모자 착용(어떤 문헌에서는 터번으로 한 곳도 있음), 이에 따른 기밀로 남겨진 사실, 이러한 목지를 폭로하는 풀(갈대)과 나무(대나무, 산수유나무) 등이다.

(2) 두 가지 사례 모두 information/ 소식의 발생 모두 인간계를 넘어선 초인간적 경지에 까지 information 또는 소식의 언진계를 전제하고 있는 점이다. 미다스왕의 경우 다신계의 신탁과 예언이 공인된 경지라면 경문대왕은 본연계 중심의 대나무, 산수유나무와 교호가 가능하다.

(3) 국왕이 당나귀귀를 가진 인간이 되어 비정상적 존재로 그려진 냉소적 풍자로 은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기원은 그리스와 신라에서 각각 차원이 다르다.

(4)미다스왕과 경문대왕 모두가 모자를 쓰고 있는 점이다. 어떤 번역에서는 터번으로 서술된 경우도 있으나 모자를 쓴다. 프리기아식의 모자로 유추해볼 수도 있다.

(5) information과 소식의 발생이 신인관계, 대인관계, 취직의 구성원 관계 중심으로 성립되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본의 내적 구성 보다는 이러한 신화 또는 설화가 성립될 수 있었던 문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문명에서 information의 기원은 신탁이나 예언에서 기원하고 신라의 소식 역시 신과 교통하는 샤먼이나 본연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점이다. 이러한 information과 소식의 발생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지혜의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인간 문념(文念)의 각성과 함께 information 또는 소식의 양식이 인간 지적 활동 중심으로 확대 변환되어 가게 된다. 신라 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및 그 이전의 삼한 시대 까지도 이와 유사한 관형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6) 국왕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로 인식되지만 부조리를 내재함을 은유한다. 미다스왕은 그리스 다중신과의 관계에서 볼 때 황금 만능의 손 기능을 부여받으면서도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 신들의 연주를 감상 판단에도 심판의 입장과 대치되면서 당나귀귀로 되는 응징을 받게 된다. 반면에 경문대왕은 상의설(연기설)에 입각한 인연 관계에서 이미 지난 업보의 소치로 당나귀귀로 되며 왕이 되더라도 벗어날 수 없이 밤이면 뱀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경문왕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7) 신, 인간, 생물이 서로 소식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호 언진 가능 관계로 본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이성 중심의 물심 이원성에 기초한 반면에 신라 설화는 샤먼 및 유훈도교 중심의 인초가 전제된 상태로 성립된다. 특히 경문왕의 경우는 불교 철학 중심의 비이원성에

기초한 소식 교감 체계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8) 미다스왕의 이발사 당나귀귀 발설과 경문대왕의 복두장 당나귀 발설이 갈대 또는 대나무 산수유로 언전이 성립되어 information 또는 소식의 확산이 자연으로 확대 되는 것은 유사하다.

(9) 구언 형태로 대중 정서에 의한 공통 정서를 중심으로 유지되어오다가 필사 문언으로 정착해 된다. 구언의 관행은 주술성, 하늘과의 교감, 신과의 교감 등과 연관지어질 수 있다.

(10) 인간의 차별성이 제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취집에서 성립된 신화이다. 그리스는 도시 국가에 따라 일치된 정치 제도를 갖추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아테네는 가장 발달한 민주제를 제도화 한다. 여기서 시민권은 20세이상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제한적 민주제를 갖춘다. 로마 역시 공화주의의 정치 제도화에서 부분적으로 신분 차별을 둔다. 신라 역시 귀족제로 노비가 공인되고 있는 점은 유사한 특성이 된다.

(11) 두 가지 당나귀귀 신화는 언론자유(freedom of speech)와 소식자유(freedom of information)를 동시에 내재하는 관형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2. 두 당나귀 신화의 이질성

<인초태의 대비표>

분석기준	신라신화	그리스로마 신화
마음주체	심성	변력(辨力 : 이성 logos/reason)
인간관 ;	性(체용상)	기량(器量 또는 用力 : faculty)
윤리지향성	달도(達道)	지식(知識 : knowledge)
생사관	相依性(緣起性)	숙명성(인과성)
언사양식	신언(愼言)/이언(離言)(佛)	여언(輿言)
언사수단 :	재기(載器)	매체(媒體)
실사인식	본연성(세계성)-조화대상	자연성- 정복/분석탐구대상
신앙/신인(神人)	천-본연중심 동체조화성	신-인간중심 신수숙명성
물심관	비이원론(일원론) 만유회통	이원론 물심배타
사조관	만물동체 천인(天人)다선순환형	피아배타 신인(神人)이원단선형

미다스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 역시 유관한 이질성을 인초태, 실용태, 의미태 중심으로 상대적 특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아래 분석하는 내용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유사성을 가지지

만 information과 소식 관형 해석에 대적 특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규명해볼 수 있고 이러한 생태구성성은 상대적 고유성이기도 하다. 예컨대 <언론>이라고 할 경우 기반 시대 실재를 관찰해보면 유불도교 모두 의미태는 유사성을 갖지만 인초태와 통용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이라는 명사가 내재하는 저변 인식 기반이 각각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로랑 바르트의 지적처럼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단히 신화를 창조하는 존재이다. 신화는 구언의 시대에서 구언 문언의 시대로 병용 시대로, 그리고 문언 우선 시대로 변환이 이루어짐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리스 로마신화와 신라 신화 모두가 이러한 시대를 경과하면서 완성된 내용이다. 이 둘 두 가지 당나귀귀는 비슷한 줄거리의 정형(定形)을 가지지만 그 저변에 내재하는 인식 정초의 상태 즉 인초태의 대비를 통하여 차별화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유사성이 있기도 하지만 공간 시간에 따라 다른 인식과 정서를 가지고 부단히 새로운 구성에 의한 생태의 구축과 순환을 지속해 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로 대칭 관계가 아니며 수술의 편의상 대비하는 도표로 만들었을 뿐이다. 앞의 도표에 제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와 신라의 신화 구성에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라의 경우 인간 삶의 주체를 심, 심성으로 본다. 그리스 로마는 인간을 변력(logos=reason)의 존재로 본다. 변력은 이성을 지칭함을 앞에서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신라의 문법은 토속 샤만 습속에서 유불도 사상을 수용하고 국가 체계를 굳혀가면서 성(性), 또는 심성(心性)의 중심으로 인간관을 체계화 한다. 유학, 도학과 함께 불교는 샤만을 융섭하여 동체 생명 사상을 갖춘다. 이들은 각각 다른 계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달도를 지향한다. 이러한 계보는 상충 관계가 아니라 병존 가능한 관계를 이루며 사조에 따라 순환해 왔다.

윤리적 지향성으로 볼 때 심성은 달도를 지향하며 변력은 앎(knowing) 또는 지식(knowledge)을 지향한다. 달도와 지식은 다축 관계로 상호 병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는 후자를 융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양적 변력은 동양적 심성의 달도 지향 활동에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신라의 유불도에서 달도를 지향하면서도 생사관은 일치하지 않으나 <삼국유사> 중심의 신라 신화를 이루는 기저는 불교 중심으로 연기성 또는 상의성이 주축을 이룬다. 상의성이란 연기성을 말하며 모든 구성은 자신이 가지는 가능성의 실천에 의존하며 상호 의존 관계에서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선형적이며 인과적 숙명성에 기초한다.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숙명성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까지도 그러하다.

신라의 유불도에서는 진리를 지향하는 달도를 위하여 최대한 신언(慎言) 즉 말을 삼가고 내향적 실천을 중시한다. 인간간의 대화나 논의에 의한 달도 보다는 성현의 모범에 실천 윤리를 맞춘다.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경지를 벗어나는 경지에서 가능하여 이를 이언(離言)이라 한다. 반면에 그리스 로마에서는 진리의 취집적 도달을 위하여 여언(興言)을 강조한다. 여언이란 함께 외향적 발언을 통하여 취집 구성원의 상호 관계에서 공통성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전제하여 다수에 의한 공변적 합리성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여언을 중시한다. 아네테의 직접민주제에서 parrhesia(freedom of speech, 또는 free speech)는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제도화된 언론자유이다.

이러한 언어적 수단을 비교해 보면 동양 언어는 도(道)를 심는 그릇 즉 재도지기(載道之器), 즉 재기(載器)로 규정한다. 내재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를 달도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유불도 모두 공통성을 갖는다. 반면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언어는 취집성에 기초한 여언의 수단인 매체(medium)로 규정한다. 여언은 외적 상호 관계에 입각한 교환과 교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서양의 communication과 동양의 언전(言傳)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는 인초태의 상대성이라 판단된다. 두 가지 신화 모두 언론자유의 범형이 될 수 있는 유사성이 있으나 전자는 신에 종속된 취집 내에서의 취유(liberty)를 전제하는 반면에 후자는 인간의 자재(自在; autodom)를 지향하는 다자적 신언(慎言)에 맞추어진다.

신라의 신앙이 본연 중심의 다신, 천(天 : 하늘)과 인간의 관계로 성립되며 본연과 인간의 상호 동체 교감에 의한 조화를 강조한다.(동체조화성) 본연이란 인격 관계를 내재한 자연을 말한다. 그리스 로마는 비인격적 물리적 현상으로 자연을 규정하며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과적 숙명성을 강조한다. 동일한 객관적 생물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본연은 인격적 상대성과 평등성을 전제하는 반면에 자연은 몰인격적 물리적 현상으로 보는데 차이가 있다. 물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가 본연 중심의 비이원적(또는 일원적) 만유동체성을 강조한다면 그리스 로마는 물심 상호 배타성을 기초로 한다.

미다스왕이 다중신에 예종하는 자유(freedom)와 평등에 기초한 계약으로 취유(liberty)가 모색되는 계약의 시대에 통용된 신화하면 경문대왕은 자신에 의하여 본연으로까지 연계되는 자재(autodom)를 지향한다.

중도구성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가 신수 이성에서 자연 이성으로 인간관이 전환되는 시대의 제 1계 사유라면 신라는 심성에 의한 2, 3계 사유를 지향하는 중관사유에 착안한 구성이 이루어진다. information이 제 1계 중심이라면 소식은 제 2, 3계 사유로까지 연장하는 경지를 내재한다. 이 점은 유불도교의 소식 음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은 미다스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를 해석하는데 저변에 내재하여 흐르는 인초태의 대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문물의 상대적 고유성이기도 하다.

3. 프리기아인 중심의 동일 계보 신화의 가능성

미다스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는 프리기아인의 이주설이 타당하다면 동일 계보의 신화 가능성이 가정될 수 있다. 문물은 부단히 흐름(flow)을 내재하기 마련이며 당나귀귀 역시 이식설, 전파설, 이주설, 생태구성설로 해석을 시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생태구성설에 착안한 전개였다. 생태구성설이란 이식 또는 전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상대적 구성이 발생 순환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 정체성을 규정해 내는 시도이다.

구조적 시각에서 보면 미다스왕과 경문왕의 당나귀귀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앞의 그리스 로마식 해석이 아니라 프리기아 종족 이동설을 중심으로 한다면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정형진은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에서 신라 왕족의 이주설을 주장한 바 있고 그 근거를 신라로 고깔모자를 쓰는 프리기아인이 이주해왔음을 주장한다.(정형진, 1995) 이러한 시각에 맞추면 그리스 신화에서 프리기아 미다스왕과 신라의 경문대왕은 동일 혈통으로 확대 해석하여 신라의 경문대왕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인 또는 사카족으로 이주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식견으로는 더 타당한 사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구체적 근거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 이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이 미제로 남겨 둔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간다라로 경유하면서 불교와 결합하고 동진하면서 한반도로 전래되듯이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신화 역시 그러한 경로를 경유하여 신라로 전래되고 경문대왕의 설화로 새로운 생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가정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을 마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의 소재를 인간의 삶 자체에서 찾으려 서양적 의미 생태를 살피고 검토하여 이를 한국 기반 문물에 적용하고 한국적 관형으로 재규정하여 재규정을 시도한 것이다. information 패러다임에 상응하여 소식 관형으로 한국적 관점을 설정하면서 개념의 생태구성 계보와 실재 사례 및 <삼국유사>에서 경문왕의 당나귀귀와 오비드의 <변신> 중 미다스의 당나귀귀를 비교한 것이다. 유사성도 있지만 상대적 이질성을 내재하는 바 이를 한국적 소식관형의 고유성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관형의 탐구는 한국적 소식철학의 체계화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한다.

○ 한국적 기반 소식철학의 모색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이질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두 언어 체계가 성립되어온 경우 어휘는 반드시 1 : 1 대응 관계로 번역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나의 명사가 의미태 중심의 의미 공유가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어온 통용태 및 그 저변에 기반을 이룬 인초태(인식정초 상태)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고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상대성을 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차별화되는 상대적 특성이 더 문화적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영어 information과 이에 상당하는 개념의 한국적 현상을 대비하여 접근을 시도한 결과 적어도 개화기 이전의 기반 실재의 생태에서 “정보”보다는 “소식” 중심의 계열어가 더 바람직한 대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소식은 이미 한자어 또는 한글로 장구한 기간동안 한국인의 인초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착하고 대중화 해온 양식이다. 그렇다면 “정보”는 앞에서 있어온 “소식” 계보어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인식 단절 상태의 어휘이다.

“정보”는 일본에서 조호로 번역된 말이며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생활 속에 주로 “첩보”를 중심으로 한정된 실재에 대하여 주로 통용되어 온 소치에 불과하며 이를 그 앞의 문물 현상에 적용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인식 논리의 시각에서 보아도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 한일합방이후 군사 첩보 중심의 기사에서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일상 어휘로 되며 국가기관의 공식 어휘로는 3.1. 운동이후 강점 상태의 한국 정세를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정보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최초의 일이며(1920년) 이 때 간행된 <조선어 사전>에는 아직 “정보”라는 어휘조차 수록되지 않는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식”을 비롯한 “주지” 계열어는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한국적 인식 기반과 논리를 수렴한 대칭어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한국 문물 중심의 인초를 수렴하여 생태구성성이 성립되어 왔으며 여기에 적어도 한국적 정체성이 연원한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의 기원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일본은 스스로 지은 “情報(조호)”를 그대로 통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992년 거국적 시도로 “情報”를 “信息”으로 사용하며 첩보는 그대로 “情報”로 사용하고 있다. information society를 信息社會라 한다. 기반 인초태를 전승하는 입장을 따르고 장구한 미래의 정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불과 50년 통용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정보”보다는 정체성을 전승하고 있는 “소식”이 더 적합하며 “소식사회”로 규정함이 더 타당성을 내포한다고 믿는다. 우선에는 다소 어색한 구사가 될 수 있지만 “소식사회(information society)” 내지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이

더 어울리고 한국적 인초에서 연원하는 기다림이 내재된 한국적 정서를 읽어내기도 용이하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와 경문왕의 당나귀귀는 상호 대칭이 되는 고유한 문물 정서를 내재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본이 서술하는 당나귀귀 중심의 사태 전개와 서술은 구조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가지지만 이러한 신화 또는 설화가 내재하는 저변의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를 병행하여 대비해 본다면 아주 상대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가 다중신의 숙명성을 배경으로 한 신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순적 아둔함을 징별하는 상징이 되면서도 정복한 프리지아를 그리스 로마 전통의 신 중심 권위에 예속시키는 암시를 내재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물심이원론적 인식에 기초한 다중신에의 예종이 전제된다.

반면에 신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는 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자기 업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불교적 무이중도설 기반의 상의성(연기성)을 내재하며 인간 중심적 풍자의 소치이다. 신 중심이 아닌 본연 중심의 비이원적 기반에 두며 대나무와 산수유는 인격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동체 유대를 이룬다.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는 인간 스스로가 지은 업보는 왕이 되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귀결이며 대나무나 산수유 즉 만물 또는 민중이 임금의 귀를 당나귀귀로 조롱하는 필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설화는 경문대왕의 업적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조소적 풍자를 한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도 있다.

○ 기반 소식관형 전개의 전제

그렇다면 한국의 기반 information 현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보”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소급 적용보다는 이 명사의 사용 이전의 경우 해당하는 실재에 대비되는 한국어의 대칭 비교 분석에 의한 규정에 의한 해석을 요한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 이전 기반 시대의 information 상당 현상에 대하여 “정보”로 규정하는 칭명은 한계가 있고 그 시대의 상대적 심식상을 전제한 언어 구사와 명사의 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보”로 칭명하는 개념을 그대로 쓰는 대신에 information의 생태구성에 상당하는 포괄적 “소식” 중심의 재규정을 요한다.

본 연구는 영어 information 관형을 차용하면서도 구조기능적 측면에서의 단순한 구조적 의미 중심의 대비가 아니라 생태구성성의 시각에서 명사의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의 개발과 한국적 관형의 새로운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아래와 같다.

- 영어 information 생태와 용례의 의미 범주를 종합해 보면 인류의 발생에서부터 구성되기 시작한 행위이며 배제될 수 없는 언전을 구성하는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나 민족 또는 문물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개념의 칭명과 지칭하는 실재는 다양할 수 있다.

-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 내지 현상을 영문 용례와 실재로 대비 추정하여 살펴보면 서양에만 있다가 동양으로 개화기 이후에 전래되어 새롭게 생긴 현상이 아니라 동양에는 동양적 생태에 맞추어 그 이전에도 오랜 구성 행위와 상당하는 언어 체계가 있어왔다. information의 의미 범주를 보면 한국 역시 다양한 양식으로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현상이 있어 왔고 이에 따른 언어 구사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언어는 정태적인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세대나 문화 전승과 함께 부단히 역동적으로 상대적인 구성과 순환이 이루어지며 생태에 따라 의미 구성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information을 “정보”로 번역하여 개화기 이후 사용해온 새로운 명사로의 조작적 규정에 의하여 그 이전 기반 시대로 소급적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변집성을 초래한다. 첫째는 기반 문물에 구성된 고유한 information 상당어를 매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구조기능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지만 고유한 정체성의 단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하는 시도는 먼저 information이 가지는 의미의 함축성에 맞추어 생태를 추정하여 시대 흐름에 상당하는 계보화의 시도와 함께 자주적 고유관형을 설정을 시도한 것이다.

21세기는 매체 융합에 이어 유비쿼터스로까지 확대하는 기술결정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식, 지식, 달도는 전혀 상호 철학적 관계의 검토 없이 구조기능적 산업적 효용성이 강조되고 내세우는 윤리성은 인본성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변력(logos=reason) 기반의 사회 윤리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그 대안책의 모색은 토착적 기반 소식철학으로 소급하여 새롭게 맥을 재발견하고 구성해가는 시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 참고문헌

- 김경일(1999). 갑골문 이야기. 서울; 바다출판사.
- 국립부여박물관(2008). 백제목간.
- 김열규(1977).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서울: 일조각.
- 김열규(2003).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서울; 아카넷.
- 김일권(2008).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서울; 사계절.
- 김재홍(2004). 고도정보사회의 여러 모습.(오리가사 가즈후미 지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경현/최재영(2008). 경주의 신라 전설 집성. 경주대학교 경주학연구소.
- 문세영(1938). <조선어 사전>. 서울: 삼문사
- 박기성(1998). 민영방송경영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기성(2002). 한국 방송 연구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태구성주의.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창간20주년 특집. pp. 139-174.
- 윤철규(2006). 한자의 기원. 서울; 이다미디어.
- 스티븐스, 미첼(1997). 뉴스의 역사. 이광재/이인희 역. 서울; 황금가지.
- 이용현(2007). 한국목간기초연구. 서울; 신서원
- 이재고(역주)(1983). 조선무속고(이능화 집술) 백려출판사.
-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2099.
- 정형진(1995).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 서울; 일빛.
- 주보돈(2002). 금석문과 신라사. 서울: 지식산업사.
- 황용훈(1987). 동북아시아의 암각화. 서울: 민음사.

- Bacon, Francis(1605). *The Advancement of Learning*.
- Dempsey, T.(1918). *The Delphic Oracle ; Its Early History Influence and Fall*.
Oxford; B. H. Blackwell
- Joad. Raymond.(1993). *Making the News*. Gloucestershire; The Windrush Press.
- Hussey, Edward(1990). "The Beginning of Epistemology: " in
Stephen Everson(1990). *Epistemology*. pp.
- Shabber, Matthias(1929). *Some Forerunners of the Newspaper in
England 1476-1622*.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ewis, Sian(1996). *News and Society in the Greek Poli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Ovid(1986). *Metamorpho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천병희(2006),
변신이야기.
- Plato(1993). *Republic*. translated by Robin Waterfield. Penguin Books.
- Russell, Frank S.(2002). *Information Gathering in Classical Greece*.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wis, Sian(1996). *News and Society in the Greek Poli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Russell, Frank S.(2002). *Information Gathering in Classical Greec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Underwood, Horace(1890). 韓英字典. Yokohama; Kelly & Walsh, Ltd.
- Vandenberg, Philip(2007). *Mysteries of Oracles*. London; Tauris Parke Paperbacks.

<별첨>

四十八, 景文大王 (삼국유사 권 제2, 기이2)

-----전략-----

王崩, 諡曰景文. 王之寢殿, 每日暮無數衆蛇俱集. 宮人驚怖, 將驅遣之, 王曰, 寡人若無蛇不得安寢, 宜無禁. 每寢吐舌滿胸鋪之. 乃登位, 王耳忽長如驢耳. 王后及宮人皆未知, 唯幞頭匠一人知之. 然生平不向人說. 其人將死, 入道林寺竹林中無人處向竹唱云, 吾君耳如驢耳. 其後風吹, 則竹聲云, 吾君耳如驢耳. 王惡之, 乃伐竹而植山茱萸. 風吹則但聲云, 吾君耳長. 道林寺舊在入都林邊.(150자)

왕이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경문이라고 했다. 왕의 침전에는 날마다 저녁이면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모여들었다. 궁인들이 놀라고 두려워 이를 쫓아내려 하자 왕은 말했다. “나에게 만약 뱀이 없으면 편히 잘 수 없으니 쫓아내지 말라.” 왕이 매번 잘 때에는 뱀들이 혀를 날름대며 온 가슴을 덮고 있었다. 왕위에 오른 후 왕은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었다. 왕후며 궁인들도 모두 이를 알지 못했으나 오로지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죽으려 할 때 도림사 대나무 밭 속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대나무를 보고 외쳤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 그런 다음부터는 바람이 불면 대나무 밭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 왕은 이 소리를 싫어하여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라는 소리만 났다. (도림사는 예전에 서울/경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숲가에 있었다.)